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 분석

김민정·이희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by Family Life Cycle

Kim, Min Jeung · Lee, Hee Sook

Dept. of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financial structures differ from the family life cycle. The data was drawn from the 2002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1,957 households. The level of total income and subcategories of inco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family life cycle and showed tendencies to increase up to the period of child birth and then sharply dropped down during the retirement period.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otal and subcategories showed a U shape by family life cycle and we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family life cycl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dining out showed the highest level at the beginning of family establishment, whereas medical cost showed the highest level for later years. The level of total assets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family life cycle and a little decreased for the later years, and the level of real estate assets showed the highest ratio(90% over) out of total asset components of family life cycle.

Key words: family life cycl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가족구조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률이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 1.3명으로 줄었으며 2008년 현재 약 1.2명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990년 24.8세에서 2008년 27세로 상승하였고, 2008년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40.6%에 달하는 등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에도 변화를 주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계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생활주기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통계청, www.kosis.go.kr).

Bryant(1986, 양정선 199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가족생활주기는 부채의 욕구 및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원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0년 1월 29일 채택일: 2010년 3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Lee, Hee Sook Tel: 82-43-261-3148 Fax: 82+43-262-2744

e-mail: leehs@chungbuk.ac.kr

축적과 경제목표가 변화하고, 가계가 주요경제목표로 인식한 경제목표는 미래의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투자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며 이를 위한 대안들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범수인·문숙재 1992). 또한 한 가계가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위치한 단계를 알면 소득수준, 소비자행동, 주부의 취업여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경제적 현상과 인간관계구조를 설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생활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장기가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범수인·문숙재 1992). 국내에서도 조희금(1984), 홍향숙(1989), 유미현(1992), 범수인·문숙재(1992), 배희선·최현자(1996), 노윤주(1997) 등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경제상태나 저축행동, 소비문제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걸쳐서는 아니더라도 특정단계의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재무관리를 다룬 연구(문숙재·정순희 1995; 양세정·성영애 1997, 양세정·이윤금 1999, 양정선·김순미 1992; 주인숙·이연숙 1996)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전체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가계의 재무구조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계재무구조란 가계의 재정자원을 구성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재무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배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재정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안 기초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 및 구분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족이며 한 가족은 남녀의 결혼과 함께 성립, 자녀출산과 함께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독립, 결혼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다시 두 부부만이 남게 된다. 즉, 인간이 가족생활을 경험하면서 미혼·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를 거쳐 시간적 연속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족은 형성되고, 발전·확대되었다가 축소되어 결국 사망으로 가족생활의 일주기는 막을 내린다(유영주 1984). 가족은 이와 같은 일생동안의 일련의 주기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주기에 요구되는 가족생활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녀출생 및 자녀성장, 그리고 부모의 생활내용에서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가족이 일생을 보내는 동안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연속을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는 학자에 따라 구분의 기준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약간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주기 중 결혼 후부터 자녀가 없는 시기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부만 남아있게 되는 시기를 구분하는 데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유영주(1984)는 가족생활주기 단계구분에 관한 외국 연구는 가정의 수입·지출, 그리고 자녀의 교육단계에 기준하거나 단순히 첫자녀의 연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문헌이나 자료를 통한 이론에 기초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정생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족생활주기단계를 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2. 재무구조

1) 재무구조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가계재무구조란 가계의 재정자

원을 구성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중 가계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현금 및 현물수입을 의미하고 그 출처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지출은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비목별 소비지출과 세금, 대출이자, 저축 등으로 구성되는 비소비지출로 구분한다. 또한 가계의 자산은 금융자산(요구불저금, 저축성저금, 비은행권저금, 보험, 유가증권, 계 불입금, 빌려준 돈), 실물자산(부동산자산으로 주택, 빌딩, 임야 등), 투자자산(주식, 채권 등) 등을 포함한다. 부채는 금융기관 혹은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할부/외상잔액, 계 타고 갚지 않은 돈, 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장분석을 통한 방법으로 재정자원의 절대액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절대액에 의한 재무구조 분석은 가계간의 객관적인 상호비교 및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된다(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에서 재인용, Frad 1990; Hong & Sxanson 1995; Plamer, Smeeding & Jencks 1980; Radner 1987; 1990).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일반적으로 가계는 재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의사결정은 과거의 결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진다. 즉, 가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것 중의 일부가 과거에 보유한 부채 때문이고 현재의 소비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는 현재의 모든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게 된다.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원의 분배 방법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지속적인 소득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저축과 신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가계경제는 가족생활의 변화와 물가, 임금, 금융과 같은 경제 및 사회정책, 교육 등 가정적, 사회적 요소 등에 따

라서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재무의 운영에는 장기적인 균형이 요구되는데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범수인 · 문숙재 1992).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한 가계의 장기적인 재정설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계복지의 정책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계에 해당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구조를 분석할 뿐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에 따른 포괄적인 재무구조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범수인 · 문숙재(1992)는 가계의 투자계획을 위해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은실 · 최현자(1998)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자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 위해 절대액을 통한 재무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양정선(1997)과 김년희(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구조 중 금융자산의 경우 모두 중 · 고등교육기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는 약간의 하락 경향을 보였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미취학기(91.6%)에서 대학교육기 이상(59.8%)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일관된 현상을 보였다. 실물자산 역시 두 연구 모두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실물자산이 대학교육기 이상으로 가면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만 평가되었는데 중 · 고등교육기까지 증가하다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미취학기가 50.4%, 대학교육기 이상이 36.6%로 가족생활주기의 흐름에 따라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형성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갖추기 위해 부채가 증가하지만 가족생활주기의 흐름에 따라 자산을 축적시키면서 부채를 상환해 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순자산의 경우 양정선(1997)은 중 · 고등교육기

까지 증가하다가 대학교육기 이상에서 약간 하락한다고 하였으나 김년희(2000)의 연구에서는 형성기에서 노년기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월평균소득, 월평균 가처분소득, 월평균 소비지출, 월평균 저축, 월평균 부채가 자녀교육기를 정점으로 증가했다가 노년기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성기 가계는 모든 자산유형을 가장 낮게 보유하고 있으며, 노년기 가계는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하여 대부분의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가계의 소득구조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가계의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구조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가계의 자산 및 부채구조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 중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추출은 가구주가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계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기혼이라도 이혼한 가정이거나 별거중인 가구의 경우는 일반적인 가계의 재무상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0의 값을 갖는 가계와 극단적으로 높은 가계는 제외시켰으며, 최종 1,957가구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

였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카이검증을, 재무구조 차이검증을 위해 F-test,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가족생활주기 구분 및 변수의 측정

가족생활주기는 유명주(1984)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6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단계는 형성기(결혼 ~ 첫 자녀의 출산 전), 2단계는 자녀양육기(첫 자녀 출산 ~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3단계는 초·중·고교육기(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 ~ 첫 자녀 대학교 입학 전), 4단계는 대학교육기(첫 자녀 대학교 입학 ~ 첫 자녀 대학교 졸업(근복무시기 포함)), 5단계는 자녀독립기(첫 자녀 대학원 입학, 취업, 결혼 ~ 막내자녀 결혼), 6단계는 노년기(막내자녀의 결혼 이후 시기를 의미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재무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한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연간총소득은 일 년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투자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국민연금, 보훈연금, 실업급여 등), 이전소득(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이나 친지보조금), 기타소득(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의 합계이며, 월평균가계소득은 연간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월평균생활비는 일 년 동안의 화폐지출금액(세금 및 공과금, 저축, 보험료 등을 위한 지출 제외)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며, 월평균보험료는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을 위한 월보험료이다. 연간총저축액은 일 년 동안 적금 등의 형태로 저축한 금액과 일년 동안 부은 껌돈 등을 합한 것이며, 월평균부채상환액은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회사를 통해 빌린 돈)에서 빌린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에 대한 매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액, 그리고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에 대한 상환액, 미리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껌돈을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투자자산),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등을 합한 금액이며, 실물자산은 주택시가, 주거를 위한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시가, 주거이외의 부동산사용을 위한 전(월)세/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아울러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계이다. 총부채는 금융기관, 비금융기관(회사를 통해 빌린 돈)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타고 앞으로 부여할 것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그리고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1,957가구는 형성기 가계 83(4.2%), 자녀양육기 420(21.5%), 초·중·고 교육기 470(24.0%),

대학교육기 327(16.7%), 자녀독립기 197(10.1%), 노년기 460(23.5%) 가계로 구성되어 있다. 카이검증을 통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성별은 노년기를 제외하고 가족생활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남성 가구주가 많았으며, 노년기의 경우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즉,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주택소유는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소유한 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진행과 함께 주택구매 계획이 실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의 경우 자녀독립기에 비해 주택소유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증여 혹은 노후자금, 자녀의 결혼자금 등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by family life cycle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χ ²
Gender	Male	1,700(86.9)	69(83.1)	405(96.4)	459(97.7)	301(92.0)	171(86.8)	295(64.1)	
	Female	257(13.1)	14(16.9)	15(3.6)	11(2.3)	26(8.0)	26(13.2)	165(35.9)	298.8***
	total	1,957(100)	83(100)	420(100)	470(100)	327(100)	197(100)	460(100)	
Age	Less than 30	104(5.3)	32(38.6)	72(17.1)	-	-	-	-	
	30~39	477(24.4)	51(61.4)	331(78.8)	95(20.2)	-	-	-	
	40~49	616(31.5)	-	17(4.0)	331(77.9)	190(58.1)	43(21.8)	-	
	50~59	294(15.0)	-	-	9(1.9)	131(40.1)	152(77.2)	2(0.4)	4120.0**
	Over 60	466(23.8)	-	-	-	6(1.8)	2(1.0)	458(99.6)	
	total	1,957(100)	83(100)	420(100)	470(100)	327(100)	197(100)	460(100)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383(19.6)	1(1.2)	2(0.5)	26(5.5)	31(9.5)	40(20.3)	283(61.5)	
	Middle School	282(14.4)	3(3.6)	13(3.1)	70(14.9)	59(18.0)	56(28.4)	81(17.6)	
	High School	739(37.8)	29(34.9)	173(41.2)	241(51.3)	166(50.8)	70(35.5)	60(13.0)	983.5***
	Over College	553(28.3)	50(60.2)	232(55.2)	133(28.3)	31(15.7)	31(15.7)	36(7.8)	
	total	1,957(100)	83(100)	420(100)	470(100)	327(100)	197(100)	460(100)	
Housing Tenure	Homeowners	1136(58.0)	16(19.3)	145(34.5)	273(58.1)	230(70.3)	152(77.2)	320(69.6)	
	Renters	821(42.0)	67(80.7)	275(65.5)	197(41.9)	97(29.7)	45(22.8)	140(30.4)	221.5***
	total	1,957(100)	83(100)	420(100)	470(100)	327(100)	197(100)	460(100)	

p<.01 * p< .001

2. 재무구조

1) 소득구조

소득구조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가족생활주기별로 살펴보았으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생활주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간총소득액의 경우 형성기(2,354만1천원, 월평균 196만2천원) 이후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3,315만8천원, 월평균 287만2천원)에는 형성기의 1.4배 정도의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나 노년기(832만9천원, 월평균 69만4천원)에 이르러서는 형성기가계의 1/3 수준, 자녀독립기의 1/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소득액은 그 흐름이 연간총소득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형성기(2,159만2천원)에서부터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2,988만8천원)에는 형성기의 약 1.4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노년기(371만7천원)에는 자녀독립기의 1/8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에는 44.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액이 증가하고, 특히 노년기에는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액이 감소한 반면 사회보험이나 이전소득 등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액의 경우 역시 근로소득액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형성기 이후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연간총소득에서

Table 2. Annual income structure by family life cycle

	10 thousand wo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
Annual income	2356.0 (100)	2354.1 ^c (100)	2702.2 ^b (100)	2793.4 ^b (100)	2847.6 ^b (100)	3315.8a (100)	832.9d (100)	155.8***
Earned income	2099.7 (89.1)	2159.2 ^c (91.7)	2530.0 ^b (93.6)	2626.7 ^b (94.0)	2669.9 ^b (93.8)	2988.8 ^a (90.1)	371.7d (44.6)	250.4***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30.3 (1.3)	9.5 ^b (0.4)	17.9 ^b (0.7)	22.6 ^b (0.8)	28.6 ^b (1.0)	75.3 ^a (2.3)	35.1 ^b (4.2)	3.0**
Income from immovables	65.2 (2.8)	0.4 ^c (0.0)	6.9 ^c (0.3)	33.0 ^c (1.2)	54.8 ^b (1.9)	149.0 ^a (4.5)	134.8 ^a (16.2)	5.2***
Social security income	33.6 (1.4)	0.0 ^b (0.0)	4.6 ^b (0.2)	5.8 ^b (0.2)	27.4 ^b (1.0)	36.9 ^b (1.1)	97.4 ^a (11.7)	11.8***
Transfer income	84.3 (3.6)	107.0 ^b (4.5)	94.4 ^b (3.5)	31.5 ^c (1.1)	33.8 ^c (1.2)	25.9 ^c (0.8)	185.9 ^a (22.3)	17.6***
• From Government	9.3	0.2 ^b	1.0 ^b	3.0 ^b	6.3 ^b	4.1 ^b	29.4 ^a	13.9***
• From Relatives/Adult Children	72.4	100.8 ^b	91.4 ^b	28.2 ^c	24.8 ^b	20.7 ^b	151.1 ^a	12.7***
• Others	2.6	6.0 ^a	1.9 ^b	0.3 ^c	2.8 ^b	1.1 ^b	5.4 ^a	2.9*
Others	42.9 (1.8)	78.0 ^a (3.3)	48.3 ^{ab} (1.8)	73.9 ^a (2.6)	33.2 ^{ab} (1.2)	39.9 ^{ab} (1.2)	8.0 ^b (1.0)	2.9*
Monthly income	196.3	196.2 ^c	225.2 ^b	232.8 ^b	237.3 ^b	276.3 ^a	69.4d	155.8***

*** p< .001 ** p< .01 * p< .05

abcd: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차지하는 비중은 형성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평균소득액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에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의 평균소득액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비교적 적게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은 자녀독립기의 1/8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액이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서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양육기 이후에는 부동산소득의 증가 정도가 금융소득의 증가 정도에 비해 크며 자녀독립기 이후의 감소정도는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주택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된다.

사회보험은 다른 소득형태의 흐름과는 달리 형성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노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형성기에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자녀독립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노년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형성기와 자녀양육기의 이전소득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젊은 부부의 경우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년기에서는 사회보험과 이전소득이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보험이나 이전소득이 은퇴 후 줄어든 근로소득을 대신하는 중요한 소득원천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은 노년기 총소득의 11.7%인데 반해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2.3%인데 이는 노년기 가정에서 은퇴 후나 실직 이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는 사회보험보다 친척/친지보조금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비지출구조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구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출항목에서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구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생활비는 형성기(103만7천원)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대학교육기(182만9천원)에 형성기의 약 1.8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노년기의 월평균생활비는 형성기의 1/2 수준, 대학교육기의 약 1.3배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비목별로는 대부분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대학교육기나 자녀독립기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비목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우선 외식비의 경우 형성기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출산 전의 소비행태를 일부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 교육기와 대학 교육기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중·고 교육기에는 공교육비가 월평균생활비의 7.5%에 불과하나 사교육비는 17.2%를 지출하여 식비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육기에서는 사교육비가 월평균생활비의 4.5%이지만 공교육비가 22.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고 교육기와 대학 교육기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교육비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하여 초·중·고교육기 동안에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한 후에도 비싼 등록금과 수업료로 인해 가계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조사비의 경우, 자녀독립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 단계 특성상 친구의 자녀결혼, 부모님 상을 위해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자녀독립기와 노년기가 다른 가족생활주기단계의 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비와 문화비, 내구재는 노년기의 가계가 다른 단계

Table 3.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s by family life cycle

	In 10 thousand wo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
Income	130.9 (100)	103.7 ^d (100)	128.5 ^c (100)	161.3 ^b (100)	182.9 ^a (100)	170.8 ^b (100)	52.9 ^c (100)	251.3 ^{***}
Food at home	31.9 (24.3)	24.9 ^c (24.0)	32.3 ^b (25.1)	38.6 ^a (23.9)	38.0 ^a (20.7)	39.5 ^a (23.1)	18.3 ^d (34.6)	127.0 ^{***}
Eat away home	5.3 (4.1)	9.8 ^a (9.4)	7.8 ^b (6.1)	6.1 ^c (3.8)	5.0 ^c (2.7)	6.2 ^c (3.6)	1.4 ^d (2.7)	48.7 ^{***}
Public education	12.4 (9.5)	1.6 ^d (1.5)	0.9 ^d (0.7)	12.6 ^c (7.8)	41.5 ^a (22.7)	21.4 ^b (12.5)	0.1 ^d (0.1)	263.5 ^{***}
Private education	11.1 (8.5)	0.4 ^c (0.4)	12.0 ^b (9.4)	27.8 ^a (17.2)	8.2 ^c (4.5)	4.7 ^d (2.8)	0.0 ^c (0.0)	150.5 ^{***}
Transportation	12.7 (9.7)	13.3 ^b (12.8)	17.7 ^a (13.8)	15.9 ^b (9.9)	15.4 ^b (8.4)	15.6 ^b (9.1)	1.7 ^c (3.3)	80.8 ^{***}
Housing	12.5 (9.6)	13.1 ^a (12.7)	12.8 ^a (10.0)	14.4 ^a (8.9)	14.0 ^a (7.6)	14.5 ^a (8.5)	8.4 ^b (15.8)	29.5 ^{***}
Cash gifts for other households' events (wedding/funeral)	5.4 (4.1)	3.9 ^d (3.7)	4.3 ^c (3.3)	5.5 ^b (3.4)	6.6 ^b (3.6)	7.9 ^a (4.6)	4.7 ^c (8.9)	13.3 ^{***}
Health	4.9 (3.8)	2.3 ^c (2.2)	4.7 ^b (3.6)	4.2 ^b (2.6)	4.7 ^b (2.6)	5.9 ^a (3.5)	6.1 ^a (11.5)	6.6 ^{***}
Culture	2.6 (2.0)	2.9 ^a (2.8)	2.6 ^a (2.0)	3.0 ^a (1.9)	3.2 ^a (1.8)	3.2 ^a (1.9)	1.3 ^b (2.5)	10.5 ^{***}
Durables	1.8 (1.4)	1.3 ^{ab} (1.3)	2.4 ^a (1.9)	2.4 ^a (1.5)	1.9 ^a (1.1)	2.3 ^a (1.4)	0.5 ^b (1.0)	6.3 ^{***}
Communication	9.7 (7.4)	8.9 ^c (8.6)	9.3 ^c (7.2)	11.8 ^b (7.3)	14.3 ^a (7.8)	14.7 ^a (8.6)	2.8 ^d (5.2)	199.5 ^{***}
Allowance	17.7 (13.5)	17.9 ^c (17.3)	17.0 ^c (13.2)	17.1 ^c (10.6)	26.6 ^b (14.5)	31.2 ^a (18.3)	6.7 ^d (12.6)	69.1 ^{***}
Others	2.8 (2.2)	3.4 ^b (3.3)	4.8 ^a (3.7)	2.0 ^c (1.2)	3.6 ^b (1.9)	3.6 ^b (2.1)	0.9 ^c (1.7)	7.4 ^{***}

*** p < .001

abcd: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가계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비의 경우 대학교육기와 자녀독립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신비에 자녀의 이동전화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용돈의 경우는 자녀독립기에 가장 많았고(31만2천원) 대학교육기(26만6천원)에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기(6만7천원)에는 매우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용돈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없어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족구성원들에게 지출되는 순수한 용돈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가정한다면 미혼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는 비용과 대학생 자녀의 용돈이 적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의복비를 포함한 기타의 경우 자녀양육

Table 4. Consumption expenditure categories which households had financial strains by family life cycle (multiple answers)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ood at home	13.3	17.1	14.2	6.0	4.0	10.6	27.1
Health	8.3	2.4	2.8	1.2	1.7	6.9	26.9
Education	26.1	3.7	18.6	43.8	53.8	22.0	0.4
Housing	9.8	9.8	9.1	6.6	3.8	11.0	17.4
Repayment	20.6	13.4	23.5	27.7	23.7	23.4	8.5
Others	5.5	9.8	7.7	3.9	2.0	6.0	6.7
Nothing	16.4	43.9	24.2	10.9	11.0	20.2	13.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가 가장 많았고(월평균 4만8천원), 노년기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비가 생활필수품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소비패턴이 선택적인 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승신 등, 2003) 의복비의 비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정확한 비목별 소비지출 구조분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비소비지출 구조

가족생활주기별 비소비지출 구조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평균저축액의 계와 기타, 월평균부채상환액의 기타항목을 제외한 모든 비소비지출 항목에 대해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생활주기별 구체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비소비지출은 형성기(76만5천원)에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자녀독립기(68만1천원)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노년기(9만6천원)에는 형성기의 1/8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항목 중 월평균보험료를 살펴보면 자녀양육기부터 자녀교육기까지에 걸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자녀독립기부터 노년기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험료는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보험료로 구성되며, 보장성보험료 지출은 자녀양육기에 가장 높았고 노년기에 가장 낮은 반면, 저축성보험

료는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생활주기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보험의 특성보다는 저축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월평균저축액의 경우 형성기 가계(44만7천원)가 가장 많은 저축을 하였고, 대학교육기(19만5천원)까지는 감소하다가 자녀독립기(32만7천원)에 상승한 후 노년기(4만8천원)에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성기 가계의 경우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저축이 증가하지만 교육기 동안(특히 대학교육기)은 감소하고, 자녀독립기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되지만 노년기에는 소득의 감소와 함께 저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대부분의 저축은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의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부채상환액은 가족생활주기의 중반기에 해당되는 초·중·고 교육기와 대학 교육기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주기의 중반기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로 가족생활주기 전반기에서 차용한 금액을 갚거나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시기라고 한 생애주기설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월평균부채상환액 중 형성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자녀독립기까지 증가하다가 노년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형성

Table 5. Monthly non-consumption expenditures by family life cycle

	10 thousand wo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
Monthly expenditure	52.5	76.5 ^a	72.2 ^b	63.9 ^b	55.9 ^b	68.1 ^a	9.6 ^c	55.6 ^{***}
Insurance	16.6 (100)	15.3 ^c (100)	23.4 ^a (100)	22.4 ^a (100)	19.3 ^b (100)	18.8 ^c (100)	1.8 ^d (100)	56.7 ^{***}
-Personal pension	2.9 (7.5)	2.4 ^b (15.9)	3.8 ^a (16.1)	4.5 ^a (19.9)	3.6 ^a (18.9)	2.9 ^b (15.3)	0.1 ^c (3.4)	18.5 ^{***}
-For pure insurance purpose	10.6 (64.0)	10.2 ^c (66.6)	15.2 ^a (64.8)	13.6 ^b (60.6)	13.3 ^b (68.8)	11.2 ^c (59.8)	1.4 ^d (76.0)	55.7 ^{***}
-For saving purpose	3.1 (18.5)	2.7 ^a (17.5)	4.5 ^a (19.1)	4.4 ^a (19.5)	2.4 ^a (12.3)	4.7 ^a (24.8)	0.4 ^b (20.6)	8.7 ^{***}
Monthly savings	23.1 (100)	44.7 ^a (100)	35.5 ^b (100)	24.6 ^c (100)	19.5 ^c (100)	32.7 ^b (100)	4.8 ^d (100)	32.8 ^{***}
-Deposit	21.0 (90.9)	42.7 ^a (95.7)	32.9 ^b (92.8)	21.6 ^c (87.8)	17.3 ^c (88.8)	30.7 ^b (93.8)	4.0 ^c (83.4)	33.4 ^{***}
-Gye	1.7 (7.4)	1.9 (4.3)	2.1 (6.0)	2.3 (9.5)	2.0 (10.1)	1.2 (3.7)	0.7 (13.6)	1.4
-Others	0.4 (1.8)	0.0 (0.0)	0.4 (1.2)	0.7 (2.8)	0.2 (1.1)	0.8 (2.5)	0.1 (3.0)	0.4
(Annual savings)	277.1	536.2 ^a	425.5 ^b	294.7 ^c	234.2 ^c	392.8 ^b	57.9 ^d	32.8 ^{***}
Monthly repayment	12.8 (100)	16.5 ^a (100)	13.3 ^a (100)	16.9 ^a (100)	17.1 ^a (100)	16.6 ^a (100)	3.0 ^b (100)	8.9 ^{***}
-For loan from financial institutes	10.3 (80.3)	3.1 ^b (18.7)	10.8 ^a (81.5)	13.6 ^a (80.4)	15.0 ^a (87.7)	15.5 ^a (93.5)	2.2 ^b (74.5)	14.8 ^{***}
-For loan from non-financial institutes	0.5 (3.6)	1.4 ^a (8.4)	0.5 ^{ab} (3.5)	1.0 ^{ab} (5.8)	0.2 ^b (1.4)	0.1 ^b (0.4)	0.1 ^b (2.9)	2.7 [*]
-For private loan	1.6 (12.2)	12.0 ^a (72.9)	1.0 ^b (7.5)	1.7 ^b (9.8)	1.4 ^b (8.2)	1.0 ^b (6.1)	0.5 ^b (16.0)	3.5 ^{**}
-Others	0.5 (3.9)	0.0 (0.0)	1.0 (7.5)	0.7 (4.0)	0.5 (2.7)	0.0 (0.0)	0.2 (6.6)	1.3

*** p < .001 ** p < .01 * p < .05

abcd: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기에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상환액이 가장 컸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자료에 포함된 「저축의 목적」에 대한 자료(다중응답)를 분석한 결과 형성기에서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택마련이 30.5%, 노후생활대비가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양육기에서는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고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26.1%, 노후생활대비를 위해서가 16.9%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교육기의 경우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가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응답이 28.9%로 많았으며 노후생활대비는 23.3%로 나타났다. 대학교육기의 경우도 불의의 사고 및

Table 6. The purposes of saving by family life cycle

(%)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Child education	22.0	5.0	30.0	28.9	22.2	10.7	1.4
Buying house	11.2	30.5	19.4	9.7	5.0	4.4	2.5
Buying furnitures	0.6	3.5	1.0	0.3	0.2	0.3	0.4
Cash gifts for other households' events (wedding/funeral)	4.6	5.7	0.3	1.0	5.0	22.3	5.3
Unexpected risks	31.1	31.2	26.1	30.9	33.6	30.8	41.4
Later years	25.2	17.7	16.9	23.3	30.8	28.0	44.2
Travel and leisure life	1.2	3.5	1.8	0.5	0.2	0.9	2.1
Business(or investment key money)	1.7	0.0	2.1	2.6	1.2	0.3	1.4
Repayments	2.2	2.1	2.5	2.6	1.8	1.9	1.1
Others	0.1	0.7	0.0	0.1	0.0	0.3	0.4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질병대비가 33.6%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생활대비가 30.8%,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가 22.2%로 나타났다. 자녀독립기의 경우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가 30.8%, 노후생활대비가 28.0%, 경조사비가 22.3%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노후생활대비와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44.2%, 41.4%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생활주기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고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가 많았다. 그러나 자녀양육기나 초·중·고교육기, 대학교육기의 경우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생활주기 초반에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이 많았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노후생활대비나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에는 85% 이상을 이러한 목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독립기에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포함한 경조사비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4) 자산·부채구조

가족생활주기별 자산과 부채 구조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자산과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투자자산과 실물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세부항목, 그리고 총부채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의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보증금의 형태로 받은 돈에 대해서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생활주기별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과 총부채, 순자산 모두 형성기에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는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며 노년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을 구성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평균보유액은 총자산의 흐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총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총자산의 대부분은 실물자산으로 가족생활주기가 흐르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점점 낮아져 노년기에는 7.6%만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

Table 7. Asset and debt by family life cycle

	10 thousand wo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
Total asset	11239.7 (100)	5230.8 ^c (100)	8250.0 ^d (100)	12052.0 ^b (100)	13228.2 ^b (100)	15663.0 ^a (100)	10915.9 ^c (100)	17.9***
Financial asset	1229.0 (10.9)	845.5 ^b (16.2)	1228.3 ^a (14.9)	1429.2 ^a (11.9)	1404.7 ^a (10.6)	1545.7 ^a (9.9)	833.8 ^b (7.6)	6.2***
-Bank deposit	908.3	638.3 ^b	913.7 ^{ab}	904.5 ^{ab}	1086.7 ^a	1157.9 ^a	722.0 ^b	3.1**
-Insurance for saving purpose	131.4	81.0 ^c	161.6 ^b	237.1 ^a	105.0 ^b	134.0 ^b	22.4 ^d	14.8***
-Investment assets	92.4	95.2 ^{ab}	107.7 ^{ab}	130.8 ^a	99.0 ^{ab}	139.1 ^a	14.0 ^b	2.8*
-Gye	13.1	14.5	11.2	19.1	24.8	10.2	1.2	1.6
-Private loan	78.4	2.4	28.5	128.2	84.3	99.0	73.9	1.2
-Others	5.5	14.1	5.5	9.5	4.9	5.5	0.3	1.2
Real estate asset	10010.7 (89.1)	4385.3 ^d (83.8)	7021.7 ^c (85.1)	10622.8 ^b (88.1)	11823.5 ^b (89.4)	14117.3 ^a (90.1)	10082.1 ^b (92.4)	18.1***
-House for living	5540.7	1085.7 ^d	3084.9 ^c	5551.9 ^b	7656.6 ^a	8880.2 ^a	5640.9 ^b	29.4***
-Key money for rent house	1901.7	2875.4 ^a	3015.9 ^a	1493.0 ^c	940.9 ^d	820.9 ^d	2271.9 ^b	32.7***
-Real estate not for living	2251.7	312.7 ^c	600.0 ^c	3137.9 ^a	2814.2 ^a	3897.2 ^a	2099.5 ^b	10.5***
-Key money for rent not for living	316.7	111.4 ^b	321.0 ^b	439.9 ^a	411.8 ^a	519.0 ^a	69.8 ^c	6.7***
Total debt	1896.2 (100)	426.7 ^c (100)	1344.6 ^b (100)	2519.1 ^a (100)	2647.8 ^a (100)	3161.8 ^a (100)	952.3 ^b (100)	19.1***
-Financial institutes	1131.7 (59.7)	303.3 ^c (71.1)	948.7 ^b (70.6)	1560.1 ^a (61.9)	1710.3 ^a (64.6)	1814.8 ^a (57.4)	306.5 ^c (32.2)	18.5***
-Non-Financial institutes	37.3 (2.0)	48.2 (11.3)	50.4 (3.7)	64.0 (2.5)	37.3 (1.4)	4.3 (0.1)	10.2 (1.1)	2.4
-Private loan	151.0 (8.0)	30.1 ^b (7.1)	126.0 ^{ab} (9.4)	220.9 ^a (8.8)	225.1 ^a (8.5)	160.4 ^{ab} (5.1)	67.4 ^b (7.1)	2.7*
-Key money for rent	557.8 (29.4)	45.2 ^c (10.6)	207.5 ^b (15.4)	659.8 ^b (26.2)	671.4 ^b (25.4)	1149.2 ^a (36.3)	531.6 ^b (55.8)	5.6***
-Gye	9.6 (0.5)	0.0 (0.0)	4.6 (0.3)	7.2 (0.3)	3.7 (0.1)	7.6 (0.2)	23.6 (2.5)	0.5
-Others	8.9 (0.5)	0.0 (0.0)	7.5 (0.6)	7.0 (0.3)	0.0 (0.0)	25.4 (0.8)	13.0 (1.4)	0.7
Net asset	9343.5	4804.0 ^d	6905.4 ^c	9532.9 ^b	10580.4 ^b	12501.3 ^a	9963.6 ^b	11.9***

*** p< .001 ** p< .01 * p< .05

abcd: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 선행연구결과(김년희 2000, 양정선 1997; 이은실·최현자 1998)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가족생활주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보유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가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가계재무의 목표로 여기고 이를 위해 가족생활주기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거주주택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예금은 자녀독립기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 노년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저축성보험과 투자자산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흐름이 유사하지만 자녀양육기와 초·중·고 교육기에서 저축성보험을 투자자산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비를 위한 교육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물자산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거주주택과 거주주택을 위해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은 상충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택 보유율과 관련이 있다. 즉, 주택보유율이 가장 낮은 형성기의 거주주택은 가장 낮지만, 이후 주택보유율이 증가하면서 거주주택은 증가하고 거주주택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사용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돈 역시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총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초중고 교육기, 대학 교육기, 자녀독립기는 다른 주기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장만을 위하여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월)세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자녀독립기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이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Table 8.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hold financial asset, real estate asset, and debt

									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χ ²
Financial asset	Some	1297 (66.3)	65 (78.3)	325 (77.4)	319 (67.9)	211 (64.5)	134 (68.0)	243 (52.8)	67.0***
	Nothing	66 (33.7)	18 (21.7)	95 (22.6)	15 (32.1)	116 (35.5)	63.0 (32.0)	217 (47.2)	
	Subtotal	1957 (100)	83 (100)	420 (100)	470 (100)	327 (100)	197 (100)	460 (100)	
Real estate	Some	191 (98.0)	81 (97.6)	417 (99.3)	459 (97.7)	320 (97.9)	193 (98.0)	447 (97.2)	5.4
	Nothing	40 (2.0)	2 (2.4)	3 (0.7)	11 (2.3)	7 (2.1)	4 (2.0)	13 (2.8)	
	subtotal	1957 (100)	83 (100)	420 (100)	470 (100)	327 (100)	197 (100)	460 (100)	
Debt	Some	981 (50.1)	21 (25.3)	225 (53.6)	294 (62.6)	188 (57.5)	122 (61.9)	131 (28.5)	155.8***
	Nothing	976 (49.9)	62 (74.7)	195 (46.4)	176 (37.1)	139 (42.5)	75 (38.1)	329 (71.5)	
	Subtotal	1957 (100)	83 (100)	420 (100)	470 (100)	327 (100)	197 (100)	460 (100)	

*** p < .001

Table 9. Average of financial asset, real estate, and debt by family life cycle (for only households which hold some)

	10 thousand won							
	Total	Family Build	Childbirth	Child Edu. (Elementary ~High)	Child Edu. (College)	Child Launching	Retirement	F
Financial asset (N=1297)	1854.4	1079.6 ^c	1578.3 ^b	2105.7 ^a	2176.9 ^a	2272.4 ^a	1578.4 ^b	5.5***
Real estate (N=1917)	10219.6	4493.5 ^d	7072.2 ^c	10877.4 ^b	12082.2 ^b	14409.9 ^a	10375.3 ^b	19.0***
Total debt (N=981)	3782.8	1686.7 ^d	2510.0 ^c	4027.1 ^b	4605.5 ^b	5105.5 ^a	3344.0 ^b	7.4***

*** p< .001 ** p< .01 * p< .05

abcd: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족생활주기별 소득 중 부동산소득도 이 단계에서 가장 높았던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총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를 살펴보고,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평균금액을 살펴보았다. 먼저 금융자산의 경우 형성기에는 78.3%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자산은 가족생활주기 후반기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가계비율이 줄었고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52.8%만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평균보유액은 형성기가 가장 적게 나타났고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는 가장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실물자산은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약 9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세금/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을 실물자산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한 실물자산의 평균금액은 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형성기에서부터 자녀독립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노년기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부채를 살펴보면 형성기에는 25.3%의 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초·중·고 교육기에는 62.6%의 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약간씩 감소하다가 노년기에는 28.5%의 가

계가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액은 형성기에 가장 적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는 형성기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노년기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자녀독립기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자녀의 결혼준비자금을 위한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Table 8, 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 분석을 통하여 가계의 장기 재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가계의 재정복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총소득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다가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았고 이후 노년기에는 이전 단계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은퇴가 근로가계재정에 매우 큰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다른 가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적이전소득보다는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재정적 노후대비 상황을 반영해 줌과 동시에 우리

나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단면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아울러 이전소득의 경우, 형성기와 자녀양육기 가계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스스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부모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월평균생활비는 형성기에서 대학교육기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자녀독립기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년기에는 이전 단계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비지출 항목 중 두드러지는 특성은 교육비인데, 자녀양육기와 초·중·고교육기의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각각 9.4%, 17.2%)이 공교육비에 대한 비중(각각 0.7%, 7.8%)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대학 교육기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4.5%로 줄어든 반면 공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22.7%로 높아져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과 수업료가 가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경제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기와 대학 교육기에서 교육비(사교육비와 공교육비 포함)에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각각 43.8%, 53.8%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기와 초·중·고 교육기의 월평균보험료 중 교육보험이 포함되는 저축성 보험이 다른 단계의 가계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가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사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 성립과 투명한 대학등록금 및 수업료 산출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년기의 가계에서는 월평균생활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주기의 가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의료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적은 소득을 갖는 노년기가계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별로 소비지출항목의 비중이 달라 가계의 재무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외식비의 경우, 형성기 가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출산 전에는 부부가 자유롭게 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되고, 통신비(이동통신료+인터넷사용료)가 자녀교육기와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들의 통신료 사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월평균보험료와 월평균저축액의 경우, 형성기에는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이나 적금이 많지만 자녀양육기와 초·중·고교육기, 대학 교육기의 경우는 개인연금이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이는 자녀가 생기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의 목적이 증가하고, 향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총자산은 형성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여 자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모든 가족생활주기에서 전세보증금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약 90%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의 유동성이 강조되는 노년기 가계는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8%에 불과하여 유동성 측면에서 자산구조의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특히 노년기의 경우는 감소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재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총부채 역시 형성기 이후 자녀독립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노년기에는 이전 단계의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노년기를 제외한 다른 주기에서는 총부채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

의 부채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총부채의 약 56%를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받은 돈이어서 노년기에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가계의 경우 실물자산을 임대해줌으로써 받는 보증금이나 전(월)세를 부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별도의 금액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노인가계를 위한 재정적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철저한 노후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어진다. 또한 현행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인가구의 재정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부담지워져 있어 자녀가구에서도 재정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재정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금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자리창출 등 정책적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혜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개인 혹은 가계가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녀의 사교육비, 대학교육비의 가계 부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 대학등록금의 경우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취업시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그러나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자녀양육기 가계가 재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자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과 병행하여 임신부터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재정적 부

담 감소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노년기 가계의 경우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가족생활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용돈 비목의 지출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용돈은 사치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계가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교육 시 노후준비 필요금액을 단순히 은퇴전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실성 있는 계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경제상태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관된 재무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보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재무상담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주택보유율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높아지지만 노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노후대비 혹은 자녀교육, 자녀독립 등으로 인한 부채청산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주택 처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년기 가계가 재무관리를 위해 좀 더 용이하게 거주주택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가 최신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자료인 2007년도의 것을 사용한 타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즉 가구주의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등이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과 남재량 등(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가보유율 60.7%는 본 연구의 59.8%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의 상황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년희(2000)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도시가계의 재정 상태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재량·이상호·최효미·신선옥·배기준(2008) 제10차(2007)년도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58-60.
- 노윤주(1997) 도시근로자 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2), 53-65.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3), 167-179.
- 범수인·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17.
- 양세정·성영애(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양세정·이윤금(1999)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8(1), 63-79.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선·김순미(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37-255.
- 유미현(199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행동.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유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이승신·배미경·Fan J(2003) 가계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한미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9), 105-120.
- 이은실·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주인숙·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6.
- 통계청(2008) 주제별 통계: 인구·가구. (2010. 01. 30). www.kosis.go.kr.
- 홍향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